

투데이 칼럼

“전북경제 회생 방안 마련하고, 시·군통합 권한 아끼지 마라”

전북자치도의 경제는 그야말로 악화일로에 들어 서고 있다. 얼마전 행안부에서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 재정자립도 순위에서 전북자치도는 23.51%를 얻어 최하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자립도 45%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처참한 수준이다. 또한 골목상권의 지표가 되는 상가 공실률도 전국 평균에 두배가 넘는 15%를 나타내고 있다. 비록 전북의 인구 유출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급기야 2062년에 전북 인구는 현재보다 33만 명이 줄어든 145만 명이 될 거라는 통계청 발표도 있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가 장기침체에 빠진 전북경제의 회생 방안이라고 내놓은 3대 민생분야 65개 사업 77억 투입 민생대책은 말 그대로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며,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재정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다. 또한 128년만에 이름을 바꾸고 아쉽게 출발했던, 전북자치도는 결코 만만 특별자치 세계스카우트캠퍼의 실패와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으로 그 기세를 이여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

이런 전북의 위기 상황에서 전북도민들은 전북도지사의 결단력과 정치적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전북도지사는 단기적인 민생안정책만 제시했을 뿐 전북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이나, 그러면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민들도 특자도의 의미가 무엇이며, 전북도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오히려 물을 지경이다. 이는 전북도와 도지사가 특자도에 대한 정치적인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제대로 된 비전이나 전북도가 미래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전문가, 정치인, 석학들은 이구동성으로 전북 발전의 유일한 해법은 새만금 개발이라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만금 3개 시군 통합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제103조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조항에 '도지사는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 시·군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고 명문화 되어 있고 올해 12월 27일에 시행 예정이다. 지금은 전북자치도지사가 적극적이고 명확한 새만금 통합방안을 제시할 때이다. 허울뿐인 새만금 특별지방단체 설립은 과감히 버리고 3개 시군이 모두 승자로 남을 수 있는 새만금 통합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통합을 전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 담보상대에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까지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고, 그 후보지를 새만금으로 과감하

게 제시해야 한다. 새만금 공공기관 이전은 전국에서 제일 못하는 전북자치도의 발전판단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도지사에게 시·군 통합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제 도지사의 결단만 있다면 새만금 발전의 주권을 중분위 결정에서 벗어나, 전북도민의 품으로 가져올 수 있다. 전북자치도의 자주권과 독립성을 가지고 도지사는 그 첫걸음이 시군통합이라는 걸 명심하기 바라며, 새만금 3개 시군 통합을 위해 조정자와 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존의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지고 있는 권한마저 아끼지 마라. 미적거리면 미적거리수록 전북은 인구 위기를 넘어 경제 위기의 늪에 빠질 것이 자명한 현실이다. 전북도지사가 지역발전을 주도해나갈 미래 비전과 전략을 잘 세우고 쇠락과 소멸의 길에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만 위기에 놓인 전북도민들이 새롭고 특별한 전북을 비로소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설

한약재 첩약도 건보 적용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첩약'이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을 말한다.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관 탈출증(허리디스크) 등 3개 질환에 처방되는 '첩약'이 해당된다. 2020년 11월부터 시행한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월경통, 안면진경자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처방된 첩약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2단계에서는 3개 질환을 더해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2단계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늘어난다. 우선 참여 의료기관은 기존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도 포함된다. 1단계에서는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에 10일분까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환자 본인 부담률은 일괄 50%로 책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별로 차등 산정한다.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 등이다. 10일 치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4만~8만 원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 건강보험 적용 일수, 참여 기관이 제한적이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2단계 시범사업은 2026년 12월 까지가. 시범사업인 만큼 첩약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요건을 갖춘 5천 956곳을 참여 기관으로 선정했다.

한국 김밥 돌풍

요즘 한국의 김밥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등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한국식 냉동 김밥의 진출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5월 호주 최대 대형 마트 체인인 '울워스'에 '비비고 냉동 김밥'을 포함한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김밥은 통김밥을 토막 내어 먹는다. 그러나 중무김밥과 같이 그냥 한 번에 먹는 종류도 있다. 호주 주류 유통 채널에서 요즘 한국식 김밥이 판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입점한 제품은 '비비고 참치마요' 그리고 '김밥·불고기 김밥' 등 2종이다. 특히 불고기 김밥은 호주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춰 고기 대신 식물성 재료를 사용했다. 이들 제품은 호주 전역의 울워스 매장 1000여 곳에서 만나 볼 수 있다. 한국산 냉동 김밥은 최근 틱톡 등 쇼츠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지난해 8월부터 미국에 수출되기 시작한 한국 식품업체 울곰의 냉동 김밥이 현지에서 폭발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 CJ제일제당도 'K-스트리트 푸드' 전략 품목으로 김밥을 육성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일본 대형 마트 이온 등 주류 유통 채널, 2000여 곳에서 '비비고 김밥' 3종인 햄야채·불고기·김치치즈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1년간 150만개 이상 판매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CJ제일제당은 호주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현지 주류 유통 채널 진출 및 현지 생산 시설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울워스에서는 지난해부터 '비비고 만두' 6종을 판매 중이다. 대형 편의점 체인 이지마트에서도 지난해 11월부터 비비고 떡볶이와 김스낵, 핫반 등을 출시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경찰과 충돌한 아르헨티나 반정부 시위 참가 여성



12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허비에르타 마일리 대통령의 개혁안을 논의하는 동안 국회 밖에서 시위 중인 한 여성이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교육법 반대, 의회로 행진하는 콜롬비아 교사들



콜롬비아 교사 파업 첫날인 12일(현지시각) 보고타에서 교사들이 교육개혁을 위한 정부의 교육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의회로 행진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